



의례

타임머신 타고 무덤 속으로

두 개의 무덤 / 서은영(중앙여고)

가야소녀 람이의 일기 / 김요람(제일고)

아들에게 쓰는 편지 / 이혜원(구산중)

신비한 무덤 속으로 / 오유진(장유중)

유물을 찾아서 / 정경진(구산중)

가야의 무덤 속으로 / 강성혜(중앙여고)

아빠와의 하루하루 / 황주희(봉명중)



두 개의 무덤

서은영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 박사는 자신의 느긋한 아침이 와장창 깨지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 조수가 새벽부터 걸어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다. 아무리 밤낮 없는 직업이라지만 심하지 않나. 자신이 즐겨 마시던 모닝커피를 탁자에 올려놓고 이 박사는 서둘러 차 키를 쥘졌다.

“박사님. 저희가 한창 유물 발굴 중인 무덤이요, 아무리 봐도 기분이 요상한 게 뭐가 더 있을 것 같다니까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입 닫고 얼른 가서 발굴이나 도와.”

자신의 집과 1~2시간 정도의 거리가 있는 경남 지방으로 차를 몰다 언젠가 유 조수가 말 했던 것이 기억났다. 하~참. 쓸데없는 곳에 감이 좋다고 생각했던 녀석이지만 녀석의 그게 이런 때에 빛을 발해 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어쩐지 뒤통수 맞은 듯한 기분에 괜히 뒷머리를 긁적였다.

새벽에 걸려왔던 전화는 발굴 중이던 가야의 고위급 귀족의 무덤 아래에서 변한 시대의 유물이 발굴되었다는 것이었다.

“유 조수! 전화, 그거 거짓말 아니지?”

“예! 그럼요. 빵을 칠게 없어서 그런 걸로 빵을 치겠습니까? 얼른 오세요, 얼른요!”

이 조수의 손짓에 유 박사는 안전을 위해 덮어 놓은 천을 밟으며 거의 발끝이 끝나가는 무덤 사이를 지나갔다. 이 무덤은 가야시대 고위 귀족의 무덤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빼곡하게 들어찬



덩이쇠

덩이쇠들 때문이었다. 이 덩이쇠는 언제나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 때문에 가야 시대 때 화폐 대신으로 사용되는 물건이었다. 화폐 역할을 했던 덩이쇠가 쌓일 정도로 많았으니 이는 문헌 사람이 부자라는 얘기였다.

뿐만 아니라, 철검의 손잡이 끝에 둥근 고리를 달고 다양한 무늬로 장식하는 장식대도나 전쟁 시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문헌 사람이 높은 계급이었음을 보여주는 새 모양 장식이 붙은 미늘쇠,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귀걸이나 팔찌도 이곳에 묻힌 이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음을 알게 했다. 구슬이나 옥을 귀하게 여겼던 가야지만 신라의 문물이 들어오는 5세기 중엽 이후라면 금이나 은으로 만든 장식품이 종종 나오기도 하니 시기를 따지자면 5세기 즈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는 시신 근처에 놓인 도질토기들이었다. 신석기 때나 청동기 시대와는 달리 높아진 기술력으로 1,000℃가 넘는 온도에서 구워져 매우 단단하고 회색빛을 띠는 도질토기들이 하나같이 똑같지 않고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야의 토기양식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유물들의 시기도 뚜렷하고 발굴도 거의 끝나가는 무덤에서 뜬금없이 변한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다고? 그럴 수가 있는 것 인지.

천천히 옛날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는 유 박사의 팔을 이 박사가 끌어당겼다.

“이것 좀 보세요! 중국 화폐인 오수전이 제법 많이 발견되어서 엄청 놀랐다니까요.”

이 조수가 가리키는 대로 파헤쳐진 땅 구석을 바라보니 딱 봐도 많은 수의 오수전이 드러나 있었다. 물론 오수전만으로 이 무덤이 변한 시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걸 모를 이 조수가 아니기에 유 박사는 이 조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검은색으로 옷칠된 그릇과 수정 목걸이가 있습니다!”

“하하하” 하고 허공을 향해 웃음을 터뜨리는 이 조수를 잠시 불쌍하다는 듯 쳐다본 유 박사는 얼른 땅바닥으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검은 빛을 띠는 무언가가 땅 위로 툭 하니 튀어나와 있었다. 이 조수의 말대로 검은 옷칠 그릇이었다.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제법 되는 것을 보니 어쩌면 제사상을 차리듯 그릇들이 놓여있을 것 같았다. 옷칠은 나무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나무에 좋지 않은 열기나 습기에 강하니 좋은 상태로 발굴해 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바로 그 근처에 흙이 잔뜩 묻어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수정 몇 알이 반쯤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유 박사는 신난 얼굴로 얼른 다가가 관찰하기 시작했다. 금과 은으로



수정목걸이

만든 장식품이 많았던 위의 무덤과 달리 수정이 나왔다는 것은 이 두 무덤의 시기가 다름을 알려주었다. 정말 이 조수의 말대로 시기가 다른 두 무덤이 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토지가 비옥하고 환경이 좋은 곳이기에 다른 시대의 무덤이 한 곳에서 함께 발견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 하지만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덤 아래에 또 무덤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이 우연한 상황에 유 박사는 기쁜 마음을 숨길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외쳤다.

“얼른 재발굴 시작합시다!!”

그렇게 또다시 시작된 두 번째 발굴이 끝을 보일 무렵, 멀지 않은 곳에서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고 한다.



가야소녀 람이의 일기

김요람 김해제일고등학교 1학년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매우 슬펐지만,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 마을의 지배자로서 역할을 너무 잘해주셨기에 너무 감사했고, 나의 할아버지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다.

오늘 할아버지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 무덤 장소를 정하였는데, 그곳을 많은 마을 어른들이 파보니 또 다른 물건들이 계속 나왔다. 나는 왜인지 무척 궁금했지만, 그냥 조용히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신 오돌돌 할머니를 찾아가서 물어보았다. 내가 할머니께 왜 처음 보는 물건들이 나오는지 물었더니 할머니께서는 무덤에서 나온 물건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차곡차곡 쌓여져 여러 사람들이 묻힌 땅이라서 여러 시대의 물건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해주셨다. 나는 신기해서 할머니께 신석기 시대부터 물어보았다.

할머니께서는 신석기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 보다 엄~청 오래전 시대라고 하셨다. 신석기 시대 때는 무덤에 빗살무늬토기를 넣어, 죽은 사람에 대한 풍요로움을 기원하였다고 이야기하셨다. 선생님께서는 빗살무늬토기는 음식과 곡식을 저장하는 토기였다고 하셨는데, 죽은 사람 무덤에 빗살무늬토기가 들어간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뿐만 아니라 붉은칠토기, 눌러찍기문토기, 덧무늬토기

등 여러 토기들을 무덤에 넣었다고 하셨다. 이렇게 많은 토기들을 넣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밧찌, 뼈치레걸이, 뼈조각품, 조가비팔찌 등 여러 장신구를 넣었다고 이야기해주셨다. 장신구를 넣어 죽은 사람을 예쁘게 꾸며주었다고 하셨다.

할머니께서 신석기 시대뿐만 아니라 청동기 시대도 있다고 하셨다. 청동기 시대라니? 처음 들어보는 시대라 나는 너무 신기하고 놀랐다.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이라는 것도 있고, 고인돌이라는 무덤도 있었다고 하셨다. 할머니께서 무덤을 그려주셨는데 그냥 책상같이 생겼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부터 지배자가 등장했다고 하셨다. 할머니께서는 무덤에는 청동검, 간돌칼을 묻어 죽어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묻었다고 하셨다. 칼을 넣었다니 살짝 무서웠다.

할머니께서는 바위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바위에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어떻게 바위에 그림을 그릴까? 정말 대단한사람들인 것 같다. 바위그림은 이름이 있었는데 암각화라고 불린다고 하셨다. 할머니께서는 암각화는 제사를 지냈던 장소에서도 사용되고 죽은 사람의 풍요를 기원했다고 하셨다. ‘저런 바위도 제사에 사용되다니?!!’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아직 다 끝이 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또 있다니!’ 할머니는 삼한이라는 시대도 있었다고 하셨다. 삼한! 처음 듣는 나라의 이름이었다. 삼한시대 때는 죽은 사람의 신분을 많이 나타내고, 죽은 사람을 위해 많은 물건을 넣어주었다고 하셨다. 그 중 칼과 칼집을 넣어 죽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옷칠을 한 부채를 죽은 사람의 얼굴에 덮어 하늘로 영혼이 날아가도록 하였으며, 삼한시대부터 글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주셨다. 이렇게 칼과 칼집, 그리고

부채와 붓에는 옷칠을 하여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만들었다고 이야기 해주셨다.

또 청동거울 이야기도 해주셨다. ‘거울이라... 얼굴을 보는 거울을 말씀하시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청동거울은 얼굴을 볼 수도 있었지만, 뒷면에 무늬를 새겨 특별한 의미들을 많이 숨겨놓았다고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청동거울은 빛, 태양, 별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신성한 물건으로 여겼다고 말씀하셨다.



청동거울

청동거울뿐만 아니라 수정목걸이도 무덤에 넣었다고 한다. ‘수정목걸이는 우리 엄마가 아끼는 목걸이인데, 삼한시대부터 수정목걸이가 있었구나!’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지금은 금, 은이 더 중요하고 값이 비싸지만 삼한시대에는 수정목걸이를 더 소중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옷칠을 한 굽다리접시로 죽은 사람의 무덤에 장례음식을 넣어주었다고 하셨다.

옛날과 지금 우리의 무덤에 넣는 물건들이 다르니 나는 정말 신기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셨다.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위대한 마을의 지배자셨다고! 그래서 좋은 물건을 무덤에 엄청 많이 넣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실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다. 할아버지 무덤에는, 돈으로 사용되었던 덩이쇠를 넣어서 하늘나라에서도 돈을 많이 쓸 수 있게 하시고, 고리자루칼, 새모양 미늘쇠를 넣어 할아버지의 신분을 모두에게 보여주실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시대마다 무덤에 넣는 물건은 정말 다양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여러 시대를 지나온 땅에 묻히셨다. 할아버지는 지금 그 땅에 묻히신 분들과 하늘나라에서 만

났을지도 모른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저 곳에 묻혀서 할아버지를 꼭
하늘나라에서 만나고 싶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졌다.



아들에게 쓰는 편지

이혜원 김해구산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어 너에게 의례에 관하여 긴히 할 말이 있단다. 아들아 너의 고조할아버지 즉, 나의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삼한시대를 사셨는데 증조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나의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적 내게 증조할아버지의 의례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시고는 했단다.

어머니께서는 증조할아버지의 시신을 통나무관에 넣어 관의 양쪽에 흙을 만들어 무덤 속에 내린 후 췌기를 박아 바닥에 고정시켰다고 말씀해 주셨단다. 통나무관은 변한의 널무덤인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그 속을 파서 만들거나 긴 나무판을 조립하여 만든 약 240cm 길이의 납작토기, 끌, 송곳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란다. 나의 증조할아버지 얼굴에는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윤이 나도록 하는 장식적인 기능과 부패, 습기, 열에 강하고 접착력을 좋게 해주기 위해 옷칠을 한 칠부채를 덮어 하늘로 영혼이 날아가게 하고 빛, 태양, 그리고 별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신성한 물건인 청동거울과 무기를 쓰셨던 증조할아버지의 신분이 잘 나타나는 칼과 칼집도 시신과 함께 무덤에 묻었다고 하구나. 어렸을 때의 난 증조할아버지 무덤에 칼과 칼집은 왜 넣는지 이해하지 못해 아버지께 여쭙보았더니 삼한시대나 지금의 가야나 무덤에 신분을 나타내는 의례 용품을 넣는다고 말씀하셨단다.

그리고 장례음식들 또한 칠굽다리접시에 넣어 묻었다고 하더구나.

아들아 가야시대가 되고 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어언 10년이 된 지금 나도 죽음을 준비하고 있구나. 10년 전 나의 아버지는 죽기 약 일주일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신 것인지 복골로 미래를 짐 쳐 보셨단다.

나는 살아있을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 검소하게 사신 아버지를 위해 죽어서라도 돈 쓰시라고 쇳덩이를 얇게 두드려서 만든 철판으로, 도끼나 창과 같은 철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이며 크기, 모양, 무게를 비슷하게 만들어 화폐나 금괴처럼 사용한 덩이쇠를 무덤에 아버지 즉, 너의 할아버지의 시신과 함께 묻었다. 또한, 부디 하늘로 가시라고 새를 본떠 만든 토기들도 넣었다. 또, 나의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전쟁 때 큰 공을 세워 우리 집의 자랑이 된 청동검에서 실용적인 무기인 날카로운 철검으로, 손잡이 끝에 둥근 고리를 달고 그 안에 용이나 봉황을 장식한 고리자루칼과 아래쪽에 자루를 꽂는 구멍이 있고, 양쪽에 고사리 모양의 미늘이 달려 있어 말을 탄 적군을 걸어 떨어뜨리는 전쟁용 무기로 새 모양이 장식되어 상징성이 두드러지는 새모양 미늘쇠도 같이 넣었다.



미늘쇠

네 할아버지는 편두와 발치, 문신 등을 하시는 등 어릴 적부터 멋 부리는 데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빛깔이 곱고 아름다워 장신구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수정으로 만든 수정 목걸이를 굉장히 아끼셨고 그 외에도 자신이 아끼던 금 귀걸이, 팔찌와 자신을 함께 묻어달라고 하더구나.

나도 죽을 때가 되고 나니 아버지가 자주 생각이 나구나. 아마 너

도 죽을 때가 되면 내 생각이 많이 나지 않을까 싶구나. 내가 죽거든 의례 행위는 꼭 치러야 한다. 의례 행위는 자연에 대한 숭배, 개인과 마을의 안전, 다산과 풍요, 죽은 사람에 대한 경의 등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으로 사후세계에서 풍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이의 영혼을 기리는 것이기도 하단다.

아들아 의례는 집 안이나 집 주변, 농경지, 무덤, 산, 강이나 바닷가 등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에서 이루어진단다. 나는 집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었으므로 의례를 집 안에서 치렀으면 하구나. 나를 묻을 때에는 내가 평소 아끼던 옷칠을 한 붓과 함께 묻어다오.

또, 하늘의 열매이자 신성한 과일인 복숭아의 씨를 묻어다오. 복숭아는 장수, 괴력, 여성, 다산을 뜻하므로 나의 손자 며느리 즉, 네 며느리가 다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남긴단다. 복숭아씨와 함께 흙인형도 같이 묻어주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가족들을 잘 부탁하마. 다음 생애에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며..

-아버지가-



신비한 무덤 속으로

오유진 장유중학교 2학년

“김해시에서 새로운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무덤을 함께 조사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 ○○신문 -

나는 이 기사를 읽자마자, 바로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그 자리로 달려갔다. 무덤에서는 한참 유물들의 발굴 작업 중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유물들을 발굴할 동안, 나는 이미 발굴된 유물들을 찬찬히 들여다 보고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배모양토기였다. 아니, 이 배모양토기는 저번 에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아, 경주 금령총의 배모양 토기!’ 하지만 이 토기는 경주 금령총에서 발견된 토기보다 100여년 빠른 것으로 보인다. 배모양토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간다는 믿음을 담고 있는데... 이 무덤의 주인의 지인이 만들어 시신과 함께 묻어 주었나보다.

다음 유물을 살펴보아야겠다. 이 유물은 토기인데, 굉장히 배모양토기와 같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다. ‘음.. 굽다리 위에 뿔잔이 없어져 있고, 그 양 옆은 수레바퀴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군.’ 이 토기는 일상생활에 이용되진 않았을 것이고, 의례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이 토기 또한, 배모양토기와 마찬가지로



수레바퀴모양토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운반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 같다.

수레바퀴모양토기 옆에는, 가늘고 긴 쇠자루 같이 생긴 것이 놓여 있었다. ‘아니, 이것은 눈에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작은 도랑을 트거나 김을 땀 때 사용하던 농기구, 살포가 아닌가?’ 살포는 당시, 논농사를 장악했던 지배자의 무덤에 주로 묻혀있는데, 아무래도 논 의 주인은 권력을 장악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방금, 유물 하나가 추가로 더 발견되었다. 이것은 새모양토기이다! 고대 사람들은 새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다고 한다. 새를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 옆에, 미늘쇠가 있다. 미늘쇠는 길쭉한 철판인데, 가장자리에 가시 모양이 달려있는 것으로, 말을 탄 적군을 떨어뜨릴 때 사용한다. 그런데, 이 미늘쇠 또한 새 모양으로 장식되어있는데, 역시 가야인들은 새를 숭배했던 것 같다. 이러한 미늘쇠가 묻힌 무덤의 주인은 높은 신분인 경우가 대다수라 한다.

미늘쇠를 보고 있던 동안, 계속해서 더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었다.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커다란 참나무 관이다. 참나무의 크기를 보니 350여년 정도 된 것 같아 보인다. 통나무관 내부가 무척이나 궁금해진다.

내부를 살펴보다,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부채였다. 부채가 시신의 얼굴부분에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참나무관 주변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이 청동검과 청동거울이었다. 청동거울 뒷면에 여러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청동검과 청동거울을 발견된 것을 보니 청동기 시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일까? 알고 보니, 아까 발견된 무덤 밑에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무덤이 하나 더 발견되었다.

밭갈 작업 하던 도중,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수정목걸이가 내 눈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한 동안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유물을 찾아서

정경진 구산중학교 2학년

오늘도 어김없이 고고학자인 나는 삽과 자루와 붓을 들고 집을 나섰다. 차를 타고 도착한 여기는 나의 동료가 알려준 옛 무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자인 나는 무덤 이곳, 저곳을 살펴보다가 이내 삽질을 시작했다. 점점 무덤이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의 삽질은 점점 더 빨라졌고, 곧 나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나의 눈에 제일 먼저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길다란 말갑옷. 말갑옷을 보니 이것이 마갑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이 많았던 삼국 시대의 유물인 것을 밝혀냈다. 이 말갑옷은 철판을 연결하여 만들었다. 아마도 삼국시대에 말에 갑옷을 입혀 상대편 진영 깊숙이 돌진하여 적군을 무찌르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말갑옷에 묻은 흙을 살살 털어서 땅 위로 올렸다.

올리고 나서 보니 그 밑에는 동글동글하기도 하고 뿔족뿔족하게 생기기도 한 여러 가지 모양의 철로 만든 듯 한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 그 옆에는 또 이상하게 생긴 철로 만든 것들이 여러 개 있었다. 나의 눈이 반짝 거리고, 나는 얼른 고개를 숙여 그 물건들을 더 자세히 봤다. 동글동글한 것들은 바로 말띠 꾸미개였다. 뿔족 뿔족 별같이 생긴 것들은 장식 도구였다. 말방울과 말띠드리개도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지렁이같이 생긴 물건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조심스럽게 들어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지렁이 같이 생긴 것은 기꽃이 같았다. 기꽃이는 멀리서도 누구의 군대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안

장에 매단 깃발을 쫓는 것이다. 예전 무덤에서 나왔던 고구려 벽화 무덤에도 무사가 탄 말에 기꼴이를 매단 모습이 그려져 있었던 게 기억이 났다. 기꼴이를 옮기고 말머리가리개에 손을 가져갔다. 전쟁을 중요시했던 삼국 시대 때는 말이 소중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말에 갑옷과 투구를 씌웠을 것이다. 말머리가리개는 말의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의 갑옷도 많이 나왔는데 사람 갑옷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삽질을 하던 나는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에 나는 황급히 땅을 확인해보니 계속해서 사람 갑옷이 나왔다. 갑옷은 판갑옷과 비늘갑옷으로 나뉘지는데 이것들은 모두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판갑옷 같았다. 철판을 못이나 가죽 끈으로 연결하여서 완성된 모습이었다. 삼국시대의 우수한 기술력은 언제나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되었다.

갑옷들을 들어내고 그 한켠에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었다. 여러 개의 철검과 철투겁창이 널려있었다. 대도 한 자루도 있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여 옆 밭굴 자리로 옮겼다. 나는 또 다시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언제부터였을까, 물건들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확인해보니 무수히 많은 토기들이 있었다. 붓으로 살살 털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저마다 글씨가 있었다. '대간'이라고 쓰여진 토기도 있고, '이득지'라고 쓰여진 토기도 있었던 반면에 글씨가 아닌 이상한 기호들이 쓰여진 토기들도 여럿 보였다. 토기들을 자세히 보니 가야(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것 같았다. '어, 친구에게 가야에도 글씨를 썼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 토기를 보니 가야 시대에 사람들이 기호와 문자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입증할 수 있었다.

계속 파다가 잠깐 쉬려고 바닥에 앉으려는 순간 손에 만져지는 물

건. ‘뭘지?’ 흙 속에서 그것을 꺼내보니 뼈였다. ‘어? 짐치는 뼈인 복골인 것 같네. 복골은 초기 철기시대와 가야시대 때 나오는 건데..’ 옛날에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짐을 치는 행위에 사용되는 뼈를 말하는데 주로 사슴이나 멧돼지의 어깨뼈를 이용한다. 어깨뼈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두꺼운 부분을 깎아내어 사용하며, 주로 얇은 부분에 구멍을 뚫는다. 구멍이 뚫린 것을 보니 복골이 확실했다. 그 옆에는 귀엽게 생긴 흙인형과 새머리모양토제품이 여러개 있었다. 작은 토기와 말모양토기도 보였다. 이것들을 보니 옛날에는 자연에 대한 숭배, 개인의 마을과 안전, 다산과 풍요, 죽은 사람에 대한 경의 등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의례 행위를 많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새모양토기다!’ 새모양토기는 가야시대 사람들이 새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사람들은 죽은 이의 영혼을 이끄는 전달자로서 새를 신성하게 여겼다. 삼한 시기부터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새를 본떠 만든 토기를 죽은 이와 함께 묻었다. 새모양토기는 등과 꼬리 부분에 액체를 담거나 따를 수 있는 구멍이 있다. 목을 자른 새모양토기나 머리만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새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의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새모양토기

그 다음날, 나는 똑같은 발굴 장소를 계속 파고 있었다. 새모양토기를 마지막으로 아무런 유물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무엇에 홀린 듯이 유물을 찾고 있었다. 밑에 다른 무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을까? 그러던 그때! 삽에 걸린 무언가! 급히 삽질을 중단하고 조심스레 그 물건을 흙 속에서 꺼내었다. 청동거울이었다. 여러 가지

무늬나 문자로 장식된 청동 거울의 다양한 무늬는 종교적인 사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배자급 무덤에서 출토된다. 무늬와 문자들을 보니 삼한시대(변한)인 것 같다.

청동거울을 시작으로 여러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러 목걸이들과 수정목걸이가 나오면서 지배자의 무덤이라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다. 수정은 빛깔이 곱고 아름다워서 그 당시 장신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역시~ 빛깔이 정말 아름답구만!’

유물들 사이에는 커다란 통나무관이 놓여 있었다. 주변의 유물들이나 관의 크기 등을 보니 지배자의 무덤이 확실했다. 관의 모양을 보니 변한의 널무덤 같았다. 변한의 널무덤은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고 그 속을 파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 통나무관은 당시 350년 된 통나무를 썰기에 박아 반으로 자른 후 내부를 철제 도끼와 자귀 등 도구로 파내고 다듬어 관의 몸체와 뚜껑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였다. 몸체와 뚜껑의 한쪽 옆면에는 각각 ‘ㄴ’ 자형 구멍을 파서 굵은 끈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관의 또 다른 측면, 머리 쪽 부분에는 위아래로 각각 2개씩의 홈이 파져 있어서 ‘X’자형으로 줄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표면에 남겨진 흔적으로 보아, 납작도끼·끌·송곳을 사용하여 만든 것 같았다.

무덤 바닥 가운데에는 타원형의 구덩이를 설치하고 그 안에 바구니가 있었다. 나는 그 바구니를 조심스레 열었다. 나는 열자마자 두 눈이 커졌다. 여러 가지 무기들과 도끼, 낫 등의 공구, 중국거울, 허리띠고리 등 장신구와 붓, 말방울 등이 있었다. 관을 고정 할 때에는 썰기를 박아 바닥에 고정한 것으로 보였다. 관을 열어보니 시체는 일직선으로 누워있는 형태에 부채가 가슴에 놓여있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옛날 사람들은 영혼이 하늘로 날아가라고 얼굴을 부채로 가렸

다고 하던데, 사실이었구나!' 바구니와 관 주변에는 옷칠을 한 굽다리 접시와 여러 필기도구, 칼과 칼집 등 옷칠제품들이 있었다. 나무껍질이 돌돌 말린 형태로 있는 걸보니 옛날에는 나무에 붓으로 글씨를 쓰고 틀리면 칼로 나무를 깎았었나 보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발굴한 유물과 함께 박물관으로 향했다. 오늘 발굴한 유물은 연구를 조금 더 하고 박물관에 전시해야겠다.



가야의 무덤 속으로

강성예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은 나는 유물을 직접 보고 싶어서 근처 박물관을 찾아보다가 국립김해박물관에 가 보기로 했다. 박물관은 처음이라서 신기했고 새로웠다. 교과서나 책에서는 제대로 보기 힘든 가야의 유물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기분이 들떠 있었다. 그리고 유물들이 어디에서 발견되었을까 생각해 보다가 ‘아! 무덤에서 발견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박물관이 하나의 커다란 무덤처럼 느껴졌다.

‘이 커다란 무덤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박물관으로 들어섰다. 나는 가야의 유물을 전시해 두었다고 해서 가야의 유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삼한의 유물들도 있었다. 제일 먼저 보게 된 유물은 숫돌과 옥투공구였다. 숫돌과 옥투공구로는 옥을 만든다고 했다. 신석기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장신구나 의례 도구를 만들었던 것을 보면 정말 신기했다. 그 옆으로 가자 조가비팔찌가 보였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조개를 먹고 그 껍질로 팔찌를 만들어 사용했던 것이다. 숫돌과 옥투공구 그리고 조가비팔찌를 보자 고대의 사람들도 꾸미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앞에도 방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부산 가덕도 유적이라는 유물이 있었다. 그런데 유골이 웅크린 자세로 묻혀 있었는데 ‘왜 이런 모양으로 묻었을까?’ 라고 생각 하던 중에, ‘아! 죽은 사람을 태아의

모양으로 묻어서 죽은 이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신기해하면서 방을 나왔는데 앞에 붉은 색의 토기가 있었다.

붉은간토기라는 이름의 토기였다. 그런데 다른 토기들과 달리 붉은 색이라는 점이 독특했다. 설명을 읽어보니 산화철을 발랐다고 되어 있는데, ‘철을 공기 중에 두면 산소와 만나서 녹이 슬고 녹은 붉은 색을 띄기 때문에 산화철을 발라 구워서 붉은 색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 보였다. 정말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2전시실로 들어섰다.

부채같이 생긴 것이 있어서 뭘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칠부채 라고 적혀 있었다. 옆에 통나무관 같은게 보여서 그 쪽으로 다가갔다. 자세히 보니 통나무관 안에 사람모형이 있고 사람의 얼굴과 가슴쪽에 새의 깃털로 만든 부채 같은 것이 보였다. 좀 전에 보았던 칠부채였다. ‘죽은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왜 칠부채를 올렸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새의 깃털로 만든 칠부채를 몸 위에 올려 줌으로써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까지 무사히 전달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새를 인간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존재로 생각해서 신성하게 여겼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며 걸다가 또 새처럼 생긴 물건이 있어서 가까이 가 보았다. 미늘쇠라고 하는데 옆 부분에 새가 여러 마리 달려있었다. 전쟁용 무기에도 새를 달아놓은 것을 보고, ‘고대의 사람들은 정말 새를 신성하게 여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옆에 목걸이가 예뻐 보여서 다가갔는데, 목걸이에 이상한 모양이 달려있었다. ‘이게 뭘까?’ 자세히 보던 중 부산 가덕도 유적이 생각났다. 목걸이에 있는 이 장신구도 태아의 모양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신석기인들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가야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1층을 모두 보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1층에 있는 칠부채나 미늘쇠 같이 새와 관련된 유물이 또 있을까?’ 라는 기대를 했다.

2층에 도착하자마자 새모양토기가 보였다. 『하늘을 날아 영혼을 전달하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그런데 새모양토기들 중에서 하나에 새 머리위에 무언가가 있었다. ‘이게 뭘까?’ 생각하던 중 다시 한번 『하늘을 날아 영혼을 전달하다.』 라는 문구가 보였다. ‘아! 새머리위에 저 것은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새가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잘 인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토기를 만들어 무덤에 같이 넣어준 것이었다.

또 ‘새와 관련된 다른 유물이 있을까’하며 이동하던 중에 수레바퀴 모양토기가 있어서 가까이 가 보았다. 수레가 물건을 옮길 때 쓰는 도구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토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 세상으로 운반할 때 사용한다는 의미로 무덤에 넣었던 것 같다.



배모양토기

앞쪽에 갑옷 같은 것이 보여서 가까이 가 보았는데 갑옷 중에 하나가 검은색이어서 눈에 띄었다. 그런데 갑옷 뒤에 빨간색의 새 모양의 무늬가 있었다. 여기에도 새 모양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정말 고대의 사람들은 새를 중요시 했던 것 같다. 좀 더 앞으로 걸어갔는데 벌써

박물관의 끝이었다. 그곳에 배모양토기가 있었는데 이 토기를 보자 아까 봤던 수레바퀴모양토기가 생각났다. 배모양토기도 수레바퀴모양 토기처럼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잘 인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죽은 이의 무덤에 넣어주었던 것 같다.

오늘 국립김해박물관의 유물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의 무덤을 들어가 보고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빠와의 하루하루

황주희 봉명중학교 2학년

0000년 0월 00일

아빠가 새벽부터 밖으로 나가셔서 되게 놀랐었다. 하지만 아빠가 저녁에 돌아 오셔서 정말 기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옛날 유물들을 발견 하셨다고 하셨다. 고고학자인 아빠로서는 정말 기쁜 일 인거 같았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나서 무엇이 발견 되었는지 물었더니 인골들과 여러 장신구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셨다. 특이하게 장신구들이 마치 일부러 인골들을 꾸며 놓은 것 같이 발견 되었다고 아빠가 말씀하셨다. ‘그게 왜 문제가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궁금한 표정을 짓자 아빠가 설명해 주셨다. 인골들에게 장신구들이 꾸며져 있었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의 의례 활동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시며 더 자세히 이야기 해 주셨다.

옛날 선사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죽은 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은 사람들을 화려하게 꾸몄다고 하시며, 이런 장신구들은 장신구 역할도 하지만 착용자의 신분과 지위, 성별 등을 알려주는 상징물이라고 하셨다.

웬지 알찬 하루 같이 느껴졌다.

0000년 0월 00일

학교에서 고인돌에 대해 배웠다. 그래서 집에서 고인돌에 관한 유물들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고인돌과 함께 발견 된 유물들은

아빠가 더 잘 안다고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해서서 아빠랑 함께 유물 사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는 대표적으로 간돌칼과 같은 많은 칼들이 같이 발견되었다고 하셨다. 간돌칼과 같은 칼들은 전쟁에 나가서 사용하는 칼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그 이유가 이런 칼들이 의례활동에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 다음으로 붉은간토기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토기들과 다르게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하셨다. 유물 사진을 보니 정말 붉은 색이었다. 왜 붉은색이냐고 물으니까 아빠가 산화철을 발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다. 산화철?



붉은간토기

산화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서 도자기 유약 같은 건가? 라고 생각했다. 아빠가 이런 내 생각을 아셨는지 철이 들어 있는 화합물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산화철 때문에 토기가 방수기능도 있고 더 윤이 난다고 하셨다. 그러고 나서 아빠가 붉은간토기는 아까 보았던 칼들처럼 의례활동에 자주 사용했다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다음에 고인돌에 관한 숙제를 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노트에다 정리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0000년 0월 0일

TV에서 새가 나와서 엄마한테 새를 키우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보니 새는 신성동물이라서 집에서 키우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셨다. 나는 가우똥거리며 아빠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 보았다. 아빠는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유물들이랑 함께 설명 해주셨다. 옛날

사람들은 무덤 속에 칠부채라는 것을 죽은 사람들의 얼굴 주변에 놓았고 때로는 새 모양을 본 뜬 토기를 같이 묻거나 새 모양을 본 떠 미늘쇠 가장자리에 장식하거나 갑옷에도 새 모양을 새기기도 했다고 하셨다. 그래서 새는 옛날부터 신성한 동물로 여겼었고 옛날 사람들이 새를 숭배했다고 하셨다. 너무 빨리 설명하셔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내가 조르자 아빠가, “사람들은 새와 다른 점이 뭘까?” 라고 물어서 내가 “사람들은 날지를 못해요!” 라고 답하자 똑똑하다고 하셨다. 웬지 기분이 좋았다. 아빠가 사람들이 날지를 못하니 죽은 후에 새의 날개를 이용해 하늘나라로 가라는 마음을 담아 칠부채를 죽은 사람들의 얼굴 주변에 놓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새모양토기도 이와 같은 이유로 죽은 사람들과 함께 묻었고 미늘쇠의 가장자리 장식과 갑옷의 새 모양은 옛날 사람들이 새를 숭배했다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셨다. 그리고 새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운반해주는 동물이라고도 하셨다. 새가 이렇게 중요한 동물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새를 직접 집에서 키우지 말고 자연에서 크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0000년 0월 0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리저리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들어오셔서 “우리 딸 다 컸네?”라고 하시며 웃으셨다. 그러시고는 옛날에도 거울이 있었다고 하셨다. 교과서에서 청동거울을 보고 배워서 아빠한테 “알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빠가 “그럼 청동거울은 전시할 때 왜 뒷면으로 전시할까?”라고 나에게 물으셨다. 순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서 가우뚱거렸다. 아빠가 게임에서 이긴 것 같은 표정으로 크게 웃으시더니 청동거울 뒷면에는 다양한 무늬와 문자가

있어서 뒷면으로 전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청동거울을 보았는데 그냥 한자랑 이상한 무늬 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이런 무늬는 그 당시의 종교적 관념과 의식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문자는 청동거울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셨습니다.

내 거울에도 예쁘게 장식해서 잘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